

광주시 예산 '4조원 시대' 열렸다

내년 예산안 4조 602억 편성 시의회 제출 청년일자리·마을공동체 사업 등 집중 투자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광주시는 11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4조602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45억(0.8%)이 증가한 3조1278억원, 특별회계는 1871억원(24.8%)이 늘어난 9324억원이다. 전체적으로는 올해 3조8485억원보다 5.5%인 2117억원이 늘었다.

세입은 지방세가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으로 올해에 비해 838억원(7.1%)이 늘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해 894억원을 발행했던 지방채는 내년에는 계획이 없어 채무비율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등 예산 낭비 사업을 제거, '더불어 사는 광주 공동체 구현'을 위한 역점 정책에 중점 배분하는 세출 예산 편성의 기초를 마련했다. 우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청년창업센터 등 12개 신규 사업 등 모두 22개 사업에 올해보다 67억

원이 증가한 151억원을 편성했다.

운장현 시장의 공약사업중 하나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10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꽃과 정원이 어우러지는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푸른도시 조성 사업에도 74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영산강·황룡강길(44km)에 이르는 아름다운 백년 숲길 조성사업(20억원), 골목길 입체 벽면 녹화 사업(20억원), 사계절 꽃 피는 광장 조성사업(8억원) 등이다.

민선 6기 6대 시정 목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참여하는 자치도시 사업에 올해보다 890억원이 증가한 1조323억원이 반영됐다. 각종 안전사업 등에 1조1625억원이, 평등한 인권도시 사업에는 119억원이 편성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사업 예산은 1조4230억원을 편성, 올해 1조3573억원보다 4.8%인 657억원이 늘었다.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분야에는 2377억원이, 문화도시 관련 사업에는 1928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집중 투자한 이노비즈센터와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이 준공을 앞두면서 경제 분야는 76억원이, 하계U대회 마무리에 따라 문화체육 관련 사업도 619억원이 각각 줄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 자립도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은 가장 높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이용승객 3명중 1명 '공짜 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광주도시철도를 이용한 승객 3명 중 1명은 무임승차, 이른바 '공짜 손님'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무임승차 비율은 평균 32.5%였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이용승객 1천85만2천명 중 589만3천명이 무임승차 승객으로 집계됐다. 무임승객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70억7천여만원으로 전체 수입액 108억8천만원의 70%에 달했다.

무임승차 비율도 2009년 30.6%, 2011년 31.9%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무임 비율이 높은 것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데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지하철이 '서민들의 대표적인 발'인 점을 고려하면 무임승승비 국가 보전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수송원가는 4천688원이지만 평균 운임은 603원에 불과해 요금 적정화율은 12.9%에 불과했다.

/이종행기자golee@



사단급 부대 정찰용 무인항공기 방위사업청은 1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단급 부대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초도 생산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무인항공기는 내년부터 최전방 육군과 해병대 사단급 부대에 배치된다. <방사청 제공>

"광주지하철 1회용카드 43만개 회수 못했다"

김민중 광주시의원 밝혀

광주시 지하철 일회용카드 미회수가 43만개, 금액으로 모두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김민중(광산 4) 시의원이 11일 광주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구입한 일회용 승차권은 모두 51만장으로 이중 43만장이 미회수됐다.

금액으로 약 6억원 상당이다. 현재 남은 일회용 승차권은 7만8854장이다. 한해 평균 3만3076장의 동전 모양 일회용 승차권

이 생활쓰레기로 버려지거나 사람 속에 방치되면서 장당 1400원씩(최근 3년 평균 제작단가 기준), 5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매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일회용 승차권 51만장 중 보통권은 19만5000장을 구입했으나 회수량은 2만3000장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할인권과 우대권은 각각 4만장과 27만5000장을 사들였으나 회수량은 각각 1만3199장·4만2568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광주의 경우 보증금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 이용

객들이 깜빡 잊고 반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일회용 승차권은 발매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한데도, 일부 이용자들이 지속 사용 가능한 것으로 착각해 반납하지 않는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서울의 경우, 일회용 승차권 발매 당시 보증금이 포함돼 있어 하차 후 승차권을 반납하면 돈을 환불해 주는 방식이어서 회수율이 높다. 김민중 시의원은 "일회용 승차권 미회수율을 줄이기 위해선 서울처럼 보증금 제도를 도입, 이용객들이 하차 후 일회용 승차권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방 평가

"광주보건환경연 장비 노후 교체 시급"

문태환 광주시의원 주장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한 실험·검사장비 노후해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소속 문태환(광산 2) 시의원이 11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한 실험·검사장비는 모두 20여년 전 장비를 이용해 각종 실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노후장비를 교체할 예산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장비 수리비용도 해마다 1억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11개월간 수리비는 모두 2억5882만원으로, 연도별로는 ▲2013년 9511만원 ▲지난해 9505만원 ▲올 들어 이날 현재 6877만 원 등이다.

문태환 시의원은 "시 최고의 실험·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 20여년 전 장비를 이용해 각종 실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노후장비를 교체할 예산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문화 메세나' 실적 미미"

임택 광주시의원 지적

광주문화재단이 아심차게 추진중인 '문화 메세나'(Mecenat) 프로젝트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임택(동구 1) 시의원은 11일 광주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환경 개선을 위한 명분으로 추진중인 문화메세나의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메세나는 기업이 사회공헌과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서영진 대표는 오는 2023년까지 문화메세나 등을 통해 기금 5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 달

성을 위해 문화보듬 1만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욕과는 달리 기부금 등 적립금은 6억4천만원으로 그나마 광주시 출연금 5억원, 국세환급금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빈손이다. 문화메세나를 통해 모금한 돈은 회원 162명이 적립한 174만원이 고작이다.

임 의원은 "지자체 출연금만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메세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영진 대표의 "지자체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참여 요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새정치 정강정책에 자치·분권 명시해야"

민형배 광산구청장 제안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에 '자치·분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9일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코쇼 '지방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민 구청장은 이날 "새누리당, 새정치 민주연합, 정의당 모두 정강이나 전문에는 자치와 분권에 관한 의견이 들어있지 않다"며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3개 부문 정책 중 '분권과 균형발전'을 독립적인 정책으로 다루 다른 당과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민 구청장은 자치와 분권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당 정강정책 수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당 전문에 '자치·분권'을 넣고, 균형발전 및 권한 나누기를 중앙의 기획이 아닌 지역의 당연한 권리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이어 "개헌, 준연방제, 소외지역 우대정책과 같은 제도적 목표를 분명히 명시해야 하고, 당이 이뤄야 할 사회구성의 원리로 서 자치,분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승렬기자 srchoi@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롬' 노인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영동 방면
◀ 상우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난임극복을 위한 시엘병원 강좌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시엘병원 별관 회의실
연자 최범채 원장

나이는 난임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임력은 더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미만이고 1년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을 경우 또는 35세 이상이고 6개월 또는 그 이상 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난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7(광천동)
문의전화 : (062)606-1710